

송강가사의 문화 콘텐츠화 방향

최한선*

<차 례>

1. 시작하는 말
2. 담양과 송강
3. 담양과 송강가사
4. <원이 엄마의 편지>와 안동시
5. 명소와 명품의 문화 콘텐츠화 실례
6. 마무리

<국문초록>

인문학이 시대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문학 작품과 작가를 포함한 여러 인문 자원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의 일차적 내지는 핵심 질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문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화는 우선 주민의 합의와 그들의 자발적 참여가 밑바탕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향과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자긍심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을 말했다.

「예기」에서 말한바 맛 좋은 음식도 먹어 보아야 그 좋은 맛을 알며, 훌륭한 도라도 배워야 그 훌륭함을 안다는 실천적 지행합일의 주장을 바탕으로, 담양에서 길러지고, 담양에서 창작을 하였던, 송강 정철의 가사문학에 대한 문화 콘텐츠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통영, 안동, 경주와 일본, 중국, 영국, 브라질, 독일 등에서 보여준 문화 콘텐츠의 선례를 보여 그들의 장·단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취사선택할 것을 말했다.

다음으로 담양군이 담양 엑스포와 대나무 축제 나아가 2018년 군 설립 천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일환으로 송강가사를 활용하여 뮤지컬, 오페라, 소설,

* 전남도립대학교

글쓰기 축제 등을 기획·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송강가사가 누정이라는 담양의 유구한 인문학적 전통과 비옥한 토양에 바탕을 두고 탄생한 것인 만큼, 누정이 위치한 자연적 환경인 청정과 생태의 조건을 융·복합하여 콘텐츠화 할 것을 말하였다.

끝으로 송강가사를 포함하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가사문학 자료에 대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명한 가사문학을 대상으로 페러프레이즈 대회는 물론 소설 화 미술 화, 음악 화, 연극 화 등과 담양이 갖고 있는 한시, 시조, 가사 등 시가문학의 명성과 역사, 자연 자원 등을 십분 활용하여 힐링(healing)과 쉐어링(sharing) 등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화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 송강가사, 문화 콘텐츠 , 삶의 질과 자긍심, 인문자원, 누정과 자연자원, 힐링(치유), 쉐어링(공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 시작하는 말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한국의 여가 문화 내지 관광 행태가 그 이전과는 많이 변했음은 주지하는 바다. 특히 인문학이 대두되면서 문화관광 또는 인문관광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놀이나 유희 위주의 관광 행태는 탐구나 탐방, 체험 또는 답사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의 확대는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앞세운 많은 유형의 여가 문화를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의학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힐링(치유:healing)이라는 새로운 레저 및 관광 유형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노년층의 증가는 관광 행태나 문화 소비에 있어

옛일을 추억하는 회고적, 낭만적인 성격의 장소를 선망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 유행의 바람으로 전국은 제주의 올레길 등 온통 길 풍년을 낳아 지자체 마다 각기 한 두 개씩의 길을 만드는 바람에 국토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며, 편백나무 숲 등 산하의 숲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자연이 되레 치유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하여간 인문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방향은 인문학 정신에 충실한 인간미(휴머니티:humanity)가 바탕이 되어야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거니와 이렇게 변화된 여가문화와 관광 행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지역에 거주하는 존재 의의를 살리고 고품격 삶으로 인도하며 주민의 자긍심과 의지를 한데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4년 후 2018년이면 담양은 군 창설 천년의 생일을 맞는다. 담양은 천년의 생일잔치 때 축제 대신 또 다른 밀레니엄(millennium)을 위해 원대한 도약과 발전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를 떠맡고 있다.

한국의 죽향(竹鄉), 또는 한국의 죽림(竹林)으로 알려진 담양은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청정과 생태 도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브랜드로 그 독특한 가치를 뽐내는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인문학적 인프라로는 면양정 등 수많은 누정과 그 곳으로부터 잉태·순산된 학문과 문학 작품은 다른 지역과 동렬의 비교를 쉽게 불허한다. 따라서 담양이 이를 선용할 경우 그 발전의 양과 질은 무한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정이나 생태 등과 관련하여선 친환경 자연 도시를 이룩하여 주민의 만족은 물론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는 몇 사례가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브라질 남동부 파라나주에 소속한 인구 200만 명의 쿠리치바(Curitiba)는 세계 최고의 생태 도시로서 1990년 환경 분야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유엔 환경 계획(UNEP)의 우수 환경상과 재생상을

받았는데 친환경 대중교통의 천국으로 불린다. 그 결과 미국 타임지는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하였으며, “거대한 숲 속에 묻혀있는 녹색 도시” 등으로도 알려졌다.¹⁾

스웨덴의 남부도시 크로노베리 주의 주도(州都)인 인구 8만의 벡쇼(Växjö)시는 환경 예산(eco budget)이라는 환경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산화탄소(CO2) 줄이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데, 2008년에 유럽 최고의 환경도시(The Greenest City in Europe)로 선정 되었으며, 같은 해 EU 집행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상” 수상 및 발틱 해 도시 연합의 “최고의 환경 실천상” 등을 받으면서 세인의 관심이 되었다. 이곳은 화석 연료 없는 도시(Fossil fuel free)를 만들기 위해 톱밥, 나무 찌꺼기 등을 사용한 바이오 연료로써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쓰레기를 20가지로 분류하여 시청과 함께 관민이 일치되어 2025년 이산화탄소 70% 줄이기를 목표로 정책 개발 등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²⁾

독일의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는 “태양의 도시”, “세계의 환경 수도”, “녹색 도시” 등으로 알려진 인구 20만의 유명한 삼림지대인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 흑림(黑林))의 관문 도시이다. 흑림이라는 말은 도시에 숲이 많아 햇볕이 들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도시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태양의 도시’라는 별칭은 원전 건설을 대신해 태양열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며, 1972년 독일 최초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건설하여 자동차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녹색 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86년 독일 최초로 환경 보호국을 설치한 이 도시는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자전거 도로를 잘 설계, 운영하여 자동차 사용을 줄임으로써 친환경 도시를 가꾸는데 성공하였다.³⁾

1) 네이버, 쿠리치바라는 희망

2) 네이버, 벡세(벡쇼)

3) 네이버, 프라이부르크

영국의 잉글랜드 북동지역에 위치한 인구 20만 명의 게이츠 헤드(Gateshead)시는 쇠퇴한 탄광도시에서 문화 관광 도시, 예술적 재생도시로 탈바꿈하였는데 성공한 선례로 널리 알려졌다. 영국의 조각가 안토니 고펀리(Antony Gormley)가 1만 개의 코카콜라 캔을 이용해 만든 북쪽의 천사(Gateshead Angel of the North)라는 조각상이 두 팔을 한껏 벌려 방문객을 맞는 도시, 게이츠헤드시는 컬처노믹스(culture와 economics의 합성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화를 통한 창의적 차별화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 발전의 논리인 컬처 노믹스는 피터 듀룬드(Peter Duerlund)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⁴⁾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몰락한 게이츠헤드가 지역문화를 테마로 도시 재생에 성공함으로써 이 말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게이츠헤드시는 도시재생 계획을 공공미술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존 다리가 지나는 차량 신속 통행이라는 개념을 밀레니엄 브릿지(Millennium Bridge) 등 보행자 전용 다리로 바꾸어 시각적 아름다움과 보행자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도시를 떠나간 사람들이 흉물처럼 남겨놓은 공장 부지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현대 미술관, 음악당 등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도시 재생을 총 지휘한 감독자는 시의 문화와 역사, 정체성을 철저히 연구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생각은 매우 주효했다. 곧 도시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행복한 도시여야만 외부 관광객들도 만족할 것이라는 개발 방침에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만들어 자발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으며, 이는 곧 대부분 사업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힐튼 호텔 등 세계적인 유명 호텔들이 개장을 했으며 대중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게 되어 연간 1천 만 관광객, 8조원의 관광 수입을 올리는 이른바, 안 사람은 행복

4) 위키미디어, 쇠퇴하던 도시 게이츠헤드는 어떻게 대반전을 이룬 것일까요?

하고, 바깥 사람은 즐거운 문화 도시로 부활했다.⁵⁾

이상에서 소개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 또는 생태도시로 알려진 몇 곳들은 인공적인 노력을 통하여 얻은 명성임을 알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점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담양과 다르며 문화적 자산을 그리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담양이 지니는 입지적 여권과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담양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면양정, 송강정, 식영정 등에서 창작된 시가문학 등 문화 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문화 도시 담양, 세계의 친환경 수도 담양을 이룩하는데 여러 시일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가사문학관이 건립된(2001년 11월 11일 오전 11시 개관) 이후 담양은 두 가지 방면으로 가사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정책을 펼쳐왔다. 먼저 14년여의 시간 동안 담양은 가사문학의 자료수집, 번역과 해제, DB구축 등 가사문학 연구를 위한 주춧돌을 촌촌히 놓아왔으며, 다음으로 가사문학 전국 학술대회, 가사·시조 창작대회, 가사·시조 낭송대회 등을 통하여 가사문학에 대한 홍보와 계승 발전 전략을 일보 일보 착착 진행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기초 작업에서 진일보하여 가사문학을 통한 지역의 인문학적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고품격의 삶을 지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이른바 가사문학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펼칠 때가 되었다. 이 글은 그러한 취지에서 준비되었으며 그 첫 번째 시도가 송강가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필자는 송강가사문학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써 흔히 말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내용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글을 쓰지 않았다. 모든 정책과 전략, 방향은 우선 지역민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먼저 생각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우선하는

5) 위키미디어, 영국 게이즈헤드

정책의 목표는 군민 개개인의 담양 거주 이유에 두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나라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자가당착의 모순과 사상누각의 보여주기 식 미봉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조류인 인문학의 바람에 휩쓸려 무모한 외연의 확장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전략의 변경은 추후의 일이라 생각한다.

이글은 안동에서 발견된 속칭 <월이 엄마의 편지>와 관련한 안동시가 보인 그간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애정 표현과 노력, 집념 그리고 자긍심에 커다란 자극을 받아 구상된 것이다. 폼하 하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망부창 夫를 그리는 내용인 <월이 엄마의 편지>와 님을 그리는 송강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비교해보면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음이 사실이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수준의 우열 아니라, 무엇을 대하는 태도와 애정 그리고 관심이다. 이제 우리도 가사문학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얇은 애정을 바꿀 때가 되었다. 그 시작을 송강가사부터 하자는 것이 이글의 또 다른 작성 취지이기도 하다.

송강 정철(1536-1594)은 가사 4편을 지었다. 그 가사들은 모두 명편으로 이름 나 있음은 모두가 잘 아는 바다. 담양 지역에서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은 그 명편들이 모두 담양과 생애적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담양이 그 명편의 고향임에 자긍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다.

2. 담양과 송강

송강 정철은 서울시 장의동(지금의 종로구 청운동)에서 태어났지만 명종 6년(1551, 16세)에 담양(당시 창평)과 인연을 맺은 뒤, 17세에 문화유씨 유강항의 따님과 결혼을 하였고, 이후 27세 벼슬에 나아가기까지

10여 년을 이곳에서 송순, 임억령, 김윤제, 김인후, 양응정, 기대승 등 큰 학자, 문인들과 사숙 또는 교유하면서 성장하였다. 이것이 담양과 송강의 첫 번째 인연이다.⁶⁾

담양을 떠나 벼슬살이를 하던 송강은 선조 8년(1575, 40세)에 동서 분당의 알력으로 대립이 심해지자 율곡에게 조정의 화합을 맡기고 담양으로 낙향하여 그 곳에서 2년여 간 지냈는데 이것이 담양과의 두 번째 인연이다.

이후 정계에 복귀한 송강은 선조 12년(1579, 44세)에 당쟁으로 인한 정치 현실의 암담함에 환멸을 느끼고 다시 담양으로 내려와 약 1년여를 머문다. 이것이 담양과의 세 번째 인연이다.

담양 생활을 하고 있던 선조 13년(1580, 45세) 1월, 송강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 받고 임지로 떠났는데 이 무렵 <관동별곡>을 짓는다. <관동별곡>의 첫 대목이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관동 /팔백리// 방임을/ 맡기시니”로 시작함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선조 14년(1581, 46세) 송강은 1년여의 관찰사 임무를 마치고 내직으로 들어와 대사성이 되었다. 이때 정승 노수신(1515-1590)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왕의 비답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사헌부와 동인들의 탄핵감이 되어 같은 해 6월에 담양으로 내려와 전라도관찰사가 되기까지 약 6개월여를 지냈다. 이것이 송강과 담양의 네 번째 인연이다.

선조 18년(1585, 50세)에 송강은 조정 내부에서 과당을 만들어 나라일을 그르치려 한다는 동인들의 공박 등에 밀려 다시 담양으로 내려온다. 이것이 송강과 담양의 다섯 번째 인연이며, 1589년(54세)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담양에서 가사는 물론 시조와 한시 등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남겼다.

<성산별곡>은 그 제작연대가 분명치 않지만 여러 표현 수법이나 작품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6) 졸저,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 2013, 태학사, 246면.

<사민인곡>, <속미인곡>의 양 미인곡은 선조 20년(1587, 52세)에 지어졌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강은 모두 다섯 차례 담양과 인연을 가졌고 그 인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4편의 아름다운 가사 작품을 남겼다. 이는 절대 순도 백의 커다란 금송아지와 같다. 이제 금송아지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것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주민의 ‘존재’ 가치 및 의의를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할 때가 되었다.

3. 담양과 송강가사

담양이 아니었다면 동방의 이소(離騷)⁷⁾로 칭송되는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과 강호·전원 가사의 백미로 일컬어진 <성산별곡>은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송강과 송강가사는 전적으로 당대 담양의 인문학적 토양과 문화적 수준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그렇게 말하려면 먼저 담양에서 터를 잡고 활동했던 훌륭한 인문학자들과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누정을 들어야 할 것이다. 사촌 김윤제(1501-1572), 면양정 송순(1493-1582), 석천 임억령(1496-1568), 하서 김인후(1510-1560), 송천 양응정(1519-1581), 서하당 김성원(1525-1597), 고봉 기대승(1527-1572) 등은 모두 송강을 만드는데 일조한 당대의 거목들이다.

16세에 담양과 인연을 맺은 송강은 담양에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김덕령의 종조부로서 나주목사를 지내고 을사사화(1545)의 화를 피해 향리인 담양에 돌아와 환벽당을 건립하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했던 김윤제에게는 행정과 정치의 경륜을, 면양정을 건립하고 <면양정가>와 <면양정 단가> 등 시문학에 달관한 송순과 식영정에서 <식영정 이십영>,

7) 김만중, 『서포만필』

<면양정 삼십영>, <송대장군가> 등 한시문에 조예 깊은 임억령으로부터는 시가문학을, 김인후와 기대승으로부터는 도학적 사유를, 양응정에게서는 의리와 신념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담양에는 당시 소쇄원(1530), 환벽당(1557 이전 건립), 식영정(1560 혹은 1563) 등 일동삼물(一洞三物)로 일컬어진 유명한 누정이 건립되어 시문과 강학의 전통이 확립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면양정(1553), 서하당(1560), 죽록정(건립 연대 미상), 독수정(고려 말) 등 누정에서 배풀어졌던 시회와 강학의 인문학적 토대는 송강의 문학적 재능 계발에 음양의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송강과 담양에서 양 미인곡의 제작 관련은 소동파의 전후 양 적벽부와 중국의 황주(중국 호북성(湖北省)의 정치·경제 문화 중심지, 대별산(大別山) 남록(南麓), 장강(長江) 북안(北岸))와의 관련을 떠올리게 한다.⁸⁾ 소식(蘇軾, 1036-1101; 호 동파(東坡), 북송의 정치가, 경학자, 서법가, 화가, 문학가)은 호북성 황주에 4년간 유배되었다.

동파는 그의 나이 45세(송 신종 3년, 1080) 때부터 4년간 황주에서 고된 시련의 시간을 보낸다. 외직의 명칭이야 “責授檢校尙書水部員外郎 充黃州團練副使 本州安置”였으나 이는 명목상의 직일 뿐 거의 유배나 다름 없는 한직에 불과했다.⁹⁾

동파의 생활은 물론 당시 황주의 지주(知州) 서군유(徐君猷)가 동파에게 호의적이기는 했으나 정치적 처지는 매우 험악한 정도여서 참소와 조롱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궁했는데, 황주의 빈한한 서생 마정경(馬正卿)의 도움을 받아 관청으로부터 수십 묘(畝)의 땅을 빌어 손수 경작하여 호구(糊口)로 삼았는데 이 황무지 땅이 옛 군영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것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¹⁰⁾

8) 성원경, 「송강과 동파문학의 비교고」,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제26집, 1994, 130-131면.

9) 王水照, 조규백 역, 『중국의 문호 소동파』, 월인, 2001, 103면.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500년의 시차를 둔 두 사람이 어느 특정 지역과의 연고에 의해서 그 지역과 관련한 이름으로 호를 삼고, 불후의 명편을 전후 두 작품으로 남겼다는 사실이다. 전후 적벽부와 양 미인곡의 문학적 연구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두 사람이 공히 4년간 중앙의 정계 중심으로부터 격리, 소외되어 다시 복귀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간절한 욕망을 문학이라는 그릇에 담아낸 것이, 특정 지역과의 연고에 의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동파의 경우 황주 유배 기간에 수필, 인물소전, 제발(題跋), 서간문 등을 많이 지었는데 이는 그 이전의 정론(政論), 사론(史論), 잡론(雜論) 등의 의론적(議論的)인 성격의 글과는 다른 것이었다.¹¹⁾ 하지만 무엇보다도 동파가 황주에서 거둔 문학적 성과는 전후 양 적벽부에 오롯이 잘 나타나 있다 할 것이다. 유배된 지 2년 후 동파 나이 47세 때 그는 7월과 10월에 걸쳐 전후 적벽부를 남긴다.

<전적벽부>는 손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전체 5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신선의 선경에 오른 듯한 기분의 즐거움-노래와 음주의 흥겨움-통소 소리를 통한 자신의 비애 표출-손님을 위로하는 주인의 희망적인 말-비애가 기쁨으로 전환하여, 다시 즐거움으로 환원하는 구성이 그것이다.

작품은 독자들을 적벽 추야의 산, 수, 풍, 월이 교직하여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경치 속으로 끌어들이고, 아울러 작자가 표연히 신선이 된 것 같은 환각의 느낌을 갖도록 서정을 유발시킨다. 나아가 애원의 통소 소리를 통하여 적벽대전에서 활약했던 오나라 주유와 위나라 조조 등 당대 이름을 날렸던 역사적 인물의 흥망을 추모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양 각도에서 인생이란 짧고 왜소한 것임을 설명하고 생명체의 존재란 그 수명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미망과 추창(惆悵) 속으로 빠져든다.

끝으로 눈앞의 경물에 나아가 자연계의 변화와 불변의 도리를 드러내

10) 조규백, 앞의 책, 104-105면.

11) 조규백, 앞의 책, 109면.

고, 작자의 활달한 정회를 표현함은 물론, 주어진 인연에 따르고, 만남에 따라 그에 편안해 하는, 사상의 정서를 드러내었다.¹²⁾

이는 물론 동파가 주인과 손님의 대화를 차용하여 자기 내면의 독백적 감정을 즐거움-비에-즐거움이라는 3단계로 드러낸 문학적 수법이지만, 그가 이렇게 낙관적 결말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불노의 사상에 경도된 정서적 안정과 북송의 신종(1068-1085)으로부터 다시 불러줄 것이라는 정치적 복귀에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지어진 <후적벽부>는 <전적벽부>의 그윽하고 고요한 가을 분위기에서 쓸쓸하고 놀라우며 공포적인 겨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기서는 도사가 학으로 변화는 등 환상과 몽롱하고 허무한 색채가 농후하다. 세상을 초월하고자 하는 심정과 불노의 해탈 정신이 더욱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¹³⁾

요컨대 동파는 중앙 정계로의 간절한 복귀를 자연계의 변(變)과 불변(不變)의 도리를 빌어 말함으로써, 피할 수 없으면 주어진 여건에 편안히 거한다는 수우안거(隨遇安居)의 자세에서 활달한 정회의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송강의 <사미인곡>은 본의 아니게 님과 이별한 한 여인의 입장을 빌어 우시연군(憂時戀君)의 뜻을 노래한 것으로 적강(謫降) 모티프와 몽유(夢遊) 모티프를 적절히 활용하여 임을 그리는 절절한 심사를 아주 간절하게 드러내었다¹⁴⁾는 평을 듣는 명품이다.

<속미인곡>은 <사미인곡>에서 못 다한 생각을 다시 펼쳐낸 것으로 임금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에 비유하여 연군의 간절한 정을 토로했다. 특히 한 여인의 독백체로 된 <사미인곡>과는 달리 두 연인의 대화체로 이루어진 <속미인곡>은 적강 모티프와 몽유 모티프의 적절한 사용과 대화체를 통한 전개와 점층적인 감정 고조의 구성

12) 錢伯城, 『古文觀止』, 上海古籍出版社, 2006, 892면.

13) 조규백, 앞의 책, 146면.

14)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 한국가사문학관, 2001, 31면.

으로 작품의 극적 효과를 획득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¹⁵⁾

세상을 초월한 듯 활달한 정회를 읊은 동파의 전후 적벽부와는 달리, 양 미인곡은 입을 그리는 절절한 마음이 읽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왜 그랬을까? 선조 임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향리 칩거 3년이 지나면서 불안과 초조의 심리 상태를 낳은 까닭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동파가 전후 적벽부에서 보인 활달한 정회는 송강의 <성산별곡>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식영정 4선으로 일컬어진 임억령, 고경명, 김성원, 정철 자신이 제작한 한시 <식영정이십영>과 임억령과 김성원이 각각 지은 <서하당팔영> 등과 작품의 의취가 부합된다. 다시 말해서 서하당과 식영정 주인의 탈속하고 고아한 산중 사시 생활을 찬미한 내용으로 강호 은일가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는 송순의 <면앙정가>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강은 선조 12년(1579, 44세)에 당쟁으로 인한 정치 현실의 암담함에 환멸을 느끼고 담양으로 내려와 약 1년여를 머문다. 이것이 담양과의 세 번째 인연임은 앞서 밝혔다. 담양 생활 1년여, 송강은 강원도관찰사를 제수 받아 임지로 떠났는데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 지역의 산수를 두루 돌아보며 느낀 감흥과 도백으로서의 포부를 드러낸 기행가사를 지었는데 바로 <관동별곡>이 그것이다.

담양에서의 칩거했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관동별곡>은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을 일일이 들어서 그윽하고 괴이한 경관을 설진(說盡)하였는데 경물을 그려냄이 신묘하고, 시어를 엮어감이 기발하여, 참으로 악보 중의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홍만중은 『순오지』에서 밝히고 있다.¹⁶⁾

결국 송강은 담양이라는 당대 성숙한 인문학의 큰 바다에서 여러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양 미인곡과 같은 절절한 사랑의 노래, <성산별곡>과 같은 탈속하고 고아한 강호자연의 한정을 말한 노래, <관동별곡>과 같은

15) 박준규 · 최한선, 앞의 책, 36면.

16) 박준규 · 최한선, 앞의 책, 42면.

신묘하고 호방하며 기발하면서도 자재(自在)롭고 섬세한 언어 부림의 기행 노래 등 불후의 가사 작품 4편을 제작하여 한국가사문학의 거봉이 될 수 있었다.

4. <원이 엄마의 편지>와 안동시

원이 아버지에게
- 병술 유월 초하룻날 집에서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
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 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 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 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 임세권(안동대 사학과 교수) 풀이

위는 1998년 안동시 정상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름 모를 무덤을 가장 하던 중에 미라 한 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같이 있던 편지다. 처음에는 시신을 보호하는 외관을 보고 최근의 무덤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발굴 작업이 진행되자 400여 년 전 조선시대의 무덤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온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옷가지와 여러 가지 소품들 중에 요절한 남편을 그리는 애절한 사연이 담긴 아내의 편지, 남편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으로 엮은 미투리가 함께 발견되었다.

무덤에선 아들 원이가 입던 옷(저고리)과 원이 엄마의 치마도 나왔다.

주인공의 형(이몽태)이 동생에게 쓴 만시(輓詩) <울면서 아우를 보낸다>와 형이 쓰던 부채에 적은 만시도 있었고, 주인공이 부친과 주고받은 편지도 여러 통 발견됐다. 발굴된 의복은 40여 벌에 이른다. 부친과 나는 편지엔 전염병 관련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무덤의 주인은 당시 전염병을 앓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친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건 이응태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걸 뜻한다.

무덤 속의 주인공은 고성 이씨 이응태(李應臺, 1556-1586)였다. 그가 젊은 나이(31세)에 병석에 눕자 아내(원이 엄마)는 남편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을 엮어 정성껏 미투리를 삼았다.

그러나 남편은 그 신을 신어 보지도 못하고 끝내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며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해로하고자 소망했던 이들 부부의 육신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언정 영혼은 지난 세월 동안에도 줄곧 함께였다. 긴 어둠의 세월 속에서 사랑을 지켜온 것은 아내가 써서 남편의 가슴에 고이 품어 묻어둔 마지막 편지였다. 풀이에서 “당신”이라고 한 것은 편지 원문에는 “자네”라고 되어 있어 16세기 부부간의 호칭에 대한 당시의 어투를 살필 수 있게 하는 재미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이 엄마의 편지>는 망부를 그리는 아내의 편지이다. 어찌 보면 가로 58.5cm, 세로 34cm의 편지 한 장이지만, 안동시는 이를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지 않았다. 안동시와 안동대학은 손을 맞잡고 이의 문화 콘텐츠 화에 열과 성을 다 했고 지금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동시가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

- ①KBS 다큐-추적 미스터리 “미라 그것이 알고 싶다”, 1998년 5월 28일.
- ②월영교 건설-안동댐 보조 호수를 잇는 한국 최장의 목책교로 384미터, 2003년.
- ③안동 아가폐상 공원 조성-높이 3미터의 원이 엄마 상 조상, 고성 이씨 문중 정자 귀래정 인근 도로변 녹지공원, 2005년 4월 7일.
- ④가요제-안동 아가폐상 제막 기념, 제 1회 안동 아가폐 가요제 페스티벌, 2005년.

- ⑤편지 비-“원이 엄마 편지 비”, 안동시 정상동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 2005년.
- ⑥국악-“원이 아버지에게”, 연변대 박위철 교수 작곡, 2005년.
- ⑦소설 <능소화>-조두진 작, 출판 예담, 2006년, 2년 10개월 만에 6만부 판매.
- ⑧무용작품-“450년 만의 외출”, 안동대 정숙희 교수 외 정숙희 무용단, 2006년 6월 8일 안동공연, 9월 23일 포스코 효자 아트홀, “412년 만의 햇빛” 등 공연.
- ⑨국악-“무한지애(無限至愛)-원이아버지에게”, 국악 안동 국악단, 박위철 교수 작곡, 제4회 안동 국악제 공연, 2006년 11월 26일.
- ⑩애니메이션-5분 36초, 안동시, 2006년 12월 22일.
- ⑪『내셔널지오그래픽』 소개-2007년 11월호.
- ⑫가요-“원이 어매”, 안동 가수 이미숙, 2008년 12월 22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콘서트, 첫 앨범의 10번째 곡.
- ⑬원이 엄마상 조상-정상동 무덤 근처.
- ⑭엔티쿼티지 표지 소개- “응태의 무덤: 한 조선인과 그를 사랑한 사람들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출토된 미이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당시의 묘제는 어떠했는가?”, “묘제의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응태 부인 원이 엄마, 그들의 가족 관계가 보여주는 한국사회는 어떠했는가?” 등을 다루고 있음. 『ANTIQUITY』, 2009년 3월호.
- ⑮KBS TV 역사스페셜-“조선관 사랑과 영혼”, 2009년 6월 26일.
- ⑯국악-“연리지”, 민속악연주단 선풍, 2009년.
- ⑰창작 오페라-“원이 엄마”, 안동대 박창근 교수 총 예술 감독, 2009년 10월, 안동대 솔피문화관 초연, 원작 <능소화>.
- ⑱중국에 소개-중국 국영 CCTV 4, 2009년.
- ⑲영화-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임진평 감독, 박재정, 윤소이 주연, 2010년 주식회사 시네마토그래프 · 안동시 공동 제작, 경상북도 후원, 안동 배경 촬영.
- ⑳고고학 저널- 『아키올로지:Archeologie』, 2010년 3/4월호.
- ㉑다큐 제작- KBS “한국의 재발견”, 안동 편, 2011년 11월 19일.
- ㉒학술대회- 『엔티쿼티』지 표지 게재 인연으로 2012년 세계 미라 학회 안동 유치.
- ㉓애니메이션-15분용, 안동시.
- ㉔칸타타-“잃어버린 꿈-원이 아빠에게“, 예음커뮤니케이션, 안동대 조성룡 교수 작곡, 주관: 경상북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팀, 2010년

11월 23일, 안동대 음악관.

- ㉕상표 등록-안동대학교, <원이 엄마의 편지>, <미투리> 상표권 등록, 2011년 3월.
- ㉖오페라-“원이 엄마”, 안동대 조성룡 교수 감독.
- ㉗관현악곡-“412년 간의 침묵, 그 후”, 안동대 조성룡 교수 작.
- ㉘한글 패션쇼-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파리 패션 박람회의 한글 패션 특별전에 원이 엄마의 편지 새긴 한복 전시, 디자이너 이상봉, 2006년.
- ㉙뮤지컬-“불멸의 사랑”, 김광보 연출, 안동 예술의 전당, 2012년 12월 27일.
- ㉚닌버벌댄스 뮤지컬-“연리지”, 서원대 연극영화학과 서상규 연출, 대구 동구 문화체육관, 2012년 7월 19일.
- ㉛3D 제작-2012년 3D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8억 6천만 원으로 한, 영, 일, 중, 터키어 등 5개국 언어로 제작, 3D 입체 영상관에서 상시 상영 예정. “이스탄불-경주 세계 엑스포 2013”에서 상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동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안동대학은 관학 합동으로 <원이 엄마의 편지>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월영교와 아가페상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사랑을 확인하고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오페라, 뮤지컬, 가요제, 칸타타, 무용 등의 공연은 시민 삶의 질 제고와 고품격 삶의 향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동시는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소설과 가요 제작, 전문 학술지까지 동원하여 위의 편지를 알림으로써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제고하였다. 그리고 나서 영화 등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의 홍보는 물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안동 거주 존재 의의를 다지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5. 명소와 명품의 문화 콘텐츠 화 실례

명소는 유명한 인물이나 역사적 유적, 유물 등과 관련되어 관광지로 이름 난 곳이거나 기암괴석 등이 있어 유명한 산 및 유장한 흐름과 눈부신 백사장 또는 광활한 시야와 눈 시리게 맑고 푸른 강물, 인위적 노력으로 명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 등을 말하며 명품은 이미 인지도가 있는 작품이나 산물 또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하여 명품이 된 경우 등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한 선행의 콘텐츠 화를 이룬 몇 곳의 사례를 살펴으로써 우리의 작업에 참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명소를 콘텐츠 화한 곳(선종 소림사 음악대전), 지역을 콘텐츠 화한 곳(유바라시), 명품을 콘텐츠 화한 경우(대홍포차), 인위적으로 명품을 만든 경우(마연일기), 유명작품의 콘텐츠 화(무녀도), 유명한 인물의 콘텐츠 화(윤이상), 역사, 전설, 지역 유산을 콘텐츠 화 경우(송성 천고정)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명소 콘텐츠 화의 사례 _선종 소림사 음악대전

중국 하남성(河南省) 등봉시(登封市) 소림사에서 제작한 <선종 소림사 음악대전>은 2007년 4월 27일 초연하여 지금까지 매일 밤 8시에 일회 공연한다. 그 연원은 불교 음악이 범패(梵唄)와 선악(禪樂)의 두 종류로 나뉘는바 그 가운데 선악은 중국 선종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는 달마대사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대승불교의 이념을 중국에서 설파한 이래, 고대 악사들은 고대의 선승들이 일상생활에서 증득(證得)한 인생 철리를 통해 시가를 창작하고 거기에 악곡을 붙인 일종의 고악(古樂) 이른바 범패악(梵唄樂)을 만들어 불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런데 범패악은 고대 인도의 4구, 6구, 8구 등 3종의 계(偈)가 주를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악은 종종 여러 구가 연결된 것으로 긴 시가 형식의 표현을 했는데 마치 명대 감산대사(憨山大師)의 <성세가(醒世歌)>나 근대 허운선사(虛云禪師)의 <피대가(皮袋歌)> 등 같은 것이 그 것이다. 중국의 송산(崇山)은 중국 5악 중 중악으로 그 지위와 경관이 수려하며 중국 선종의 조종으로 문화가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선무(禪武)와 선의(禪醫, 中醫)로도 유명하다. 나아가 역대 선사들이 일상생활에서 터득한 인생 철리를 바탕으로 창작한 불가(佛歌)와 선시(禪詩)가 널리 퍼져 전해진 것에 근거하여 이 대전을 만들게 되었다.

이 대전은 중국어와 영문으로 내용에 대한 자막이 소개되며 2,800여 개의 컴퓨터 그래픽 조명과 600여 명의 무술 공연, 무대 면적 5킬로미터, 세계 최대의 인공 달, 세계 최다 승려의 합창 계송(偈頌) 등으로 유명하다.

구성은 수악(水樂), 목악(木樂), 풍악(風樂), 광악(光樂), 석악(石樂) 등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준비물 투자 3억 5천만 원(인민폐), 연출 투자 1억 1천 5백만 원(인민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담순(譚盾)이 음악을 만들고 총 감독을 한 이 대전은 1시간 20분 공연되며 입장료는 980원, 428원, 248원 등 좌석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투자에 비해 여러 가지 악 조건이 도사리고 있어 성공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적절 않다. 그 이유는 첫째 노천극장에서 공연하는 관계로 바깥 기온이나 날씨의 조건에 따라 공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4월에서 11월까지만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우천 시에는 관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입장료 또한 가장 싼 가격이 한화 4만 5천을 상회하고 있어 여행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점이 적절 않다. 또한 자막의 경우 중문과 영문만 지원되고 있어 한국인 등 다른 언어권 관람객에게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¹⁷⁾

17) 바이두, 禪宗 少林寺 音樂大典

②명작 콘텐츠 화의 사례 _뮤지컬 무녀도 동리

작품 명: 뮤지컬 무녀도 동리

공연단체: (재)경주문화재단 내 경주시극단

원작 작가: 김동리

제작 감독: 엄국천

모화역: 노현희

낭이역: 문가영

옥이역: 김수용

연출: 엄기백

각색 작사: 최지은

작곡: 차경찬

공연기간: 2013년 9월 3일~8일 / 2013년10월11일~11월3일

공연장소: 경주 예술의전당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관람시간: 오후 3시

입장료: R: 3만 원, S: 2만 원, A: 5천 원 등

뮤지컬 <무녀도 동리>는 경주 출신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를 음악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무녀도>는 1936년 5월 『중앙』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작자는 발표 후 여러 차례 개작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개작은, 1947년에 작가가 바로 이 작품을 표제작으로 하여 을유문화사에서 창작집을 발간할 때 손을 본 것이다. 이 개작에서 그는 여주인공 모화의 아들을 기독교도로 설정하고 그가 어머니의 무속 신앙과 맞서다가 죽게 함으로써, 개작본이 최초의 판본보다 훨씬 강렬한 긴장감과 깊은 비극성을 갖도록 만들었다.

오늘날 <무녀도>를 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작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최초의 <무녀도>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작된 <무녀도>를 보면, 모화라는 무당과 기독교도인 아들 옥이의 대립이 작품 전개의 축을 이룬다. 모화와 옥이는 서로 상대방이 사귀邪鬼에 쫓였다고 생각하며, 상대를 구원해 주려 한다. 그러한 두 사람의 대립

은, 엑스타시 상태에서 모화가 휘두른 칼에 옥이가 찢리는 사태로까지 발전한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옥이는 결국 몇 달 뒤에 죽고, 얼마 후 모화도 곳을 하다가 죽게 된다. 이 모든 일을 옆에서 겪은 옥이의 씨 다른 여동생 낭이는, 찾아온 자기 아버지를 따라 길을 떠난다.

이상과 같은 줄거리를 갖고 있는 개작 본 <무녀도>는 비극적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여주인공 모화의 매력, 한국의 종교적 전통에 대한 작가의 깊이 있는 관심이 주는 감명, 탁월한 구성과 문체의 힘 등으로 일찍부터 높은 문학적성을 인정받아 왔다. 작가 자신도 이 작품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나타내어, 1978년에는 이 작품을 다시 「을화」라는 장편으로 확대 개작까지 한 바 있다.

② 뮤지컬 <무녀도 동리>는 절뚝거리는 아버지와 딸이 경주 최 부자 집으로 찾아가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최 부자 집에 도착한 부녀는 그림 한 장을 펼쳐 놓는다. 그 그림이 <무녀도>다. 그러면서 그림의 내력이 소개된다.

잡성촌이라 불리어지는 마을 한 구석에 모화毛火라는 무당이 살고 있다. 그녀가 사는 집은 넓고 허름한데, 그 집에서 무녀 모화는 딸 낭이와 함께 살고 있다. 낭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를 가졌고, 낭이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애비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위인이지만, 딸 낭이를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끔찍이 생각하는 터이므로, 어찌다 나타나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런데 발을 다쳐 걸인행색이 되고부터는 모습 보이기를 꺼린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에 옥이가 돌연 나타난다. 옥이가 찾아왔기에 망정이지, 이 허름한 가옥에 그녀들을 찾는 사람이래야 모화에게 곳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뿐이다. 모화는 곳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주막에 가 있다. 옥이는 모화와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 생긴 사생아다. 옥은 어릴 적부터 무척 총명해 신동이란 소문까지 났으나 근본이 워낙 미천하여 마을에서는 순조롭게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서 그가 아홉 살 되었을 때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어느 절간으로 보내진 뒤, 한 십여 년간 까맣게 소식조차 묘연하다가 돌연 이 집에 나타난 것이다.

낭이와 옥이는 말하자면 어미를 같이하는 오누이 사이다. 그러나 옥이는 며

칠을 가지 않아 모화와 낭이에게 알 수 없는 이상한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는 음식을 받아 놓거나,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한참 동안씩 주문呪文같은 것을 외는 것이다. 그리고는 틈틈이 품속에서 조그만 책 한 권을 꺼내어 읽곤 하는데, 낭이가 그것을 수상스레 보고 있으면, 옥이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너도 이 책을 읽어라"하고 그 조그만 책을 낭이 앞에 펴 보이곤 한다.

낭이는 옥이가 내놓은 그 조그만 책을 들여다보니, 「신약전서」라는 글자가 써어져 있다. 「신약전서」 때문에 모화와 옥이는 말다툼을 하게 된다. 다툼이 있자 옥이는 고개를 수그러 잠깐 기도를 올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 버린다. 그날 곧 돌아올 줄 알았던 옥이는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모화와 낭이, 어미와 딸은 방구석에 음울하게 웅크리고 앉아 옥이가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새벽녘에 돌아와 잠이 든 옥이는 잠결에 그의 품속에 늘 품고 있는 성경 책을 더듬어 보지만 품속이 허전함을 느낀다. 그와 동시 웅얼웅얼하며 주문을 외는 소리가 들려온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때, 밖에서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옥이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뛰어 나와 모화가 소반 위에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칼로 찢는 광경을 보게 된다. 옥이가 달려들어 말리려고 하자 모화는 식칼로 옥이의 면상을 겨누며 치려든다.

옥이가 모화를 끌어안는 순간, 모화가 칼로 옥의 등을 깊이 찌른다. 옥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다. 이 무렵 이 고을에는 서양 전도사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화가 사는 마을에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몰려다니며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

모화는 그들에게 팽과리를 치며 외친다. "서양귀신아 물러서라. 꿈무니에 불을 달고, 두 귀에 방울을 달고 왈강 달강 왈강 달강 서역 십만 리로 물러서라 잡귀신아." 그러나 '예수 귀신'은 결코 물러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간다.

옥이의 상처는 점차 악화되어 간다. 모화가 밖에 나가고 낭이 혼자 있을 때 서양전도사가 찾아온다. 옥이가 "나 성경 한 권 가졌으면..." 하는 소리에 전도사는 자기 성경을 옥의 손에 쥐어준다. 옥은 성경을 꼭 껴안고 죽는다.

옥이가 죽은 뒤 모화는 무당노릇을 그만 두고 집에만 웅크리고 앉아 술만 마셔댄다. 동리사람들은 그러한 모화를 애처롭게 쳐다보며 모화의 곳을 언제 또다시 보게 되려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모화가 마을 연못가에서 곳을 한다는 소리에 동리 사람들이 모두 모여든다.

모화의 고향과 푸닥거리에 이어 춤사위가 펼쳐지면서 모화는 차츰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사람들이 말리려 했을 때에는 이미 모화가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 모습이 보이지 않은 후가 된다. 결국 모화는 물에 빠져 죽고 만다. 경주 최부자는 <무녀도>의 사연에 한동안 비장 침울한 표정을 짓고 그림을 챙긴다. 대단원에서 아버지와 딸은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 뮤지컬 <무녀도 동리>는 마무리가 된다.

이상이 <무녀도 동리>의 내용이다.

<무녀도 동리>는 소설에서의 첩첩산중, 대나무가 우거진 숲,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깊은 밤, 그리고 풍량이 이는 바다, 비와 눈이 쏟아지는 하늘 등을 영상으로 처리해 극적효과를 높였고, 오케스트라 박스에서 연주자들의 연주도 적절하게 어우러져 명연주가 되었으며, 출연자들의 열연과 열창, 그리고 안무는 시종일관 관객을 극에 몰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뮤지컬을 제작한 경주문화재단 측은 천년 고도 경주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진 <무녀도 동리>가 경주 지역 사회의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공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뮤지컬 <무녀도 동리>는 개막부터 예약이 만료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앞으로의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설의 명성을 뮤지컬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무한한 잠재적 문화 수용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은 물론, 시대적 조류에 힘입어 고품격 문화 수준의 기대 지평에 부응한 사례라 할 것이다.

③인위적으로 명품을 만든 경우 _마연일기(馬燕日記)

작품명: 마연일기

원작자: 마연(2002년 당시 15세 여중생)

번역자: 프랑스 <<해방보(解放報)>> 북경 주재 기자, 중국명 한석(韓石),
피에르[彼埃爾], 아스키[阿斯基]

성 격: 일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 중 한족이 약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 가량이 55개 소수민족이다. 그 중 우리와 가까운 재중 중국 동포는 조선족이라 하여 소수민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선족 자치구처럼 소수민족은 5개의 자치구를 이루고 사는데 <마연일기>의 주인공 마연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의 하나로 알려진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출생의 여중생이다. 이곳은 1972년 연합국양식개발서(聯合國糧食開發署)가 인정한 인류가 생존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지역이다. 이 자치구의 동심현(同心縣) 예왕향(預旺鄉) 장가수촌(張家樹村)에 15세의 한 여중생이 있는데 그녀는 여린 어깨에 가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주 공부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가 4권이나 된다. 그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가 우연한 기회를 맞아 <마연일기>라는 제목으로 2002년 프랑스에서 출판되어 서점가에서 인기 순위에 올랐고 나중에는 중국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서반아어, 일어 등 21개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과 일본에서 잘 팔리게 되었다. 중국어로는 2003년에 화하출판사(華夏出版社)에서 같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마연일기>는 중국 서부 시골 여학생의 일상생활을 적은 것으로 그녀의 공부에 대한 갈망,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어머니로부터 상급 학교 진학을 하지 말라는 고통스러운 분위기에 따른 심경 표현, 공부를 하여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결심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극단적 가난이 엄습하는 변방의 생활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들지 아니한 인성의 찬란한 빛, 아리따운 소녀들의 넉넉한 생활에 대한 동경과 자신이 처한 가난한 삶에의 곤혹스러움, 친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 운명에 대한 불굴의 항쟁, 배움과 사회 발전에 대한 갈구 등을 담은 이 책은 마연 본인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는 많은 학생들의 운명, 심지어는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난에 체념하는 데에 익숙하고, 패

배감에 뿌리가 깊게 박힌 고향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 두 남동생과 함께 사는 회족 출신의 여중생이다. 그녀가 사는 곳의 대부분 여자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학교를 그만 두고 14세 또는 15세가 되면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마연에게도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가 왔다. 그녀의 집안 사정상 그녀와 두 남동생이 함께 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전통은 남존여비가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학업 성적이 우수하달지라도 마연의 학업 포기는 당연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마연을 꾸짖으며 말씀 하시기를 “학교에 가봤자 책도 없잖아, 네가 먼저 양을 길러라. 양이 크기를 기다려 그것을 팔아서 다시 학교에 가면 책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연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날마다 풀을 베어 양에게 주고, 밥을 지어 두 동생을 먹이고는, 틈만 나면 양에게 달려가 그 앞에 꿇어앉아 어린 양들을 바라보며 어서어서 크게 자라기를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강물 같은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 것을 보자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을 수 없으셨다. 학교를 그만 둔 지 21일 만에 마연은 다시 학교에 갔고 그 해 전교에서 1등을 차지했다.

마연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일기 쓰기를 습관으로 했는데 이는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고정이 된 -어머니의 경색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빼곡하게 일기가 적힌 4권의 문치를 어머니에게 주고 편지까지 곁들여서는 그것을 남동생을 시켜 어머니에게 읽어드리도록 했다. 일기를 들은 어머니는 “만약 내가 너를 진학시키지 못한다면, 나의 눈물이 평생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돈을 빌려 그녀를 중학교에 진학시키기로 결심했다.

이로부터 얼마 뒤 마연은 운명을 바꿀 돌발적인 전기를 맞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프랑스 《해방보》 기자인 한석(韓石, 중국명) 일행이 그녀가

사는 소산촌을 찾아 온 것이다. 마연의 어머니는 딸의 편지와 일기 3권을 한석 일행에게 전했다. 한석 일행은 북경으로 돌아온 후 그 일기와 편지를 프랑스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석은 어린 여학생의 일기에 무한 감동을 받았다. 그는 즉시 마연의 마을로 돌아와 마연을 만났다. 그 곳에서 마연은 그에게 말했다. “나는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공부를 잘하여 지식이 쌓이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반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연은 다시는 학업을 그만 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기자가 그녀에게 꿈을 물었을 때 그녀는 “나의 현재의 바람은요.....기자가 되는 거예요. 저 한석과 같은 기자 말이에요. 저는 저와 같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고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학교에 진학해서 운명을 바꾸도록 하고 싶어요.”라고 했다.

2001年7月30日 星期一 (晴)

今天下午我写日记的时候，找我的钢笔，可是它不见了。我就问两个弟弟见了没有，他们说没有。我就在昨天写日记那儿找，也没有找着。我就问母亲，你见了没有？母亲说，她看我把笔、本子都放在炕上，她怕我丢掉，就放抽屉里了。可是我在抽屉里也没找着。我的心都碎了。

你们也许会笑，一支钢笔，还值得你去伤心吗？你们不知道这支钢笔的来历，是我两学期积攒的零花钱，没有花，就买了它。我看别的同学每人有两、三支钢笔，而我连一支都没有，我就忍不住买了一支。这支钢笔的苦处其实就是我的苦处。母亲给我零花钱的原因，是我一天到晚只能吃到两顿黄米饭，她给我钱就是让我买几个馒头吃。我硬是挨饿，把钱给积攒下来了。为了这支钢笔，我不知吃了多少苦。它让我学会了什么是艰苦的生活，什么是幸福的生活。每次看到它，我就像看到了母亲。可是我令母亲失望了。我真没用，还在学校里过着牛马不如的生活，如今连女中都没有考上。活着还有什么意思呢.....

2001년 7월 30일 월요일 (맑음)

오늘 오후 내가 일기를 쓰려고 연필을 찾았는데 보이질 않았다. 나는 곧

바로 두 남동생에게 보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들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내가 어제 일기를 썼던 곳에 가 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께 연필을 보지 못하셨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내가 연필과 공책을 부뚜막 위에 놓아 둔 것을 보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서랍 속에 넣어두셨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서랍 속을 찾아봤지만 연필은 없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은 웃을 수 있습니다. 한 자루 연필 때문에 그렇게 상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 연필의 내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두 학기 동안의 용돈을 모아서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그 연필을 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각기 두 세 자루의 연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나는 단 한 자루도 없었기에 꼭 한 자루라도 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연필이 처한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던 까닭은 제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장밥 두 그릇만 먹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만두라도 몇 개 사먹으라고 용돈을 주신 것입니다.

돈이 모아지는 동안에 나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 연필을 사기 위해 나는 많은 고통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연필은 나에게 무엇이艱苦한 생활인가를 알게 해주었고, 또 무엇이 행복한 생활인가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 연필을 볼 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고 말았군요. 나는 정말 쓸모가 없군요. 아직도 학교에서는 소나 말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여중 생활 내내 상급 학교 진학 시험을 치를 수 없으니까요. 이러니 살았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연일기>는 어찌보면 중국 시골 중학교 여학생의 일기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프랑스 기자가 입수하여 세상에 알림으로써 유명해졌다. 마연은 2007년 12월 프랑스에 초청되어 유학을 갔다. 그녀의 일기가 출판되자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앞을 다투어 그녀를 돕기 위한 기금을 모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영하아동기금회(寧夏兒童基金會)가 발족되었다. 여기서 모아진 기금은 영하 지역 및 기타 지역의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아동들을 돕는데 보내진다고 한다.

마연의 일기는 이처럼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들지 아니한 인

성의 찬란한 빛, 아리따운 소녀들이 누리는 부유한 생활에 대한 동경과 곤혹스러움, 친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 운명에 대한 불굴의 항쟁, 배움과 사회 발전에 대한 갈구 등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명작이 된 경우로서, 마연 본인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는 많은 학생들의 운명, 심지어는 남존여비의 관념에 뿌리가 깊게 박힌 고향 사람들의 관습까지도 바꾸어 놓을 계기를 만들어준 콘텐츠의 실례라 하겠다.

이 경우는 원작이 주는 진솔한 인간미와 번역의 중요성, 언론 매체 및 출판물을 통한 해외 마케팅 전략이 유효한 사례라 여겨진다. 우리말과 같이 형용사, 부사, 관형어 등이 발달한 언어로 된 작품을 번역할 경우, 어떻게 원작의 숨결과 표현 미학을 되살려 낼 수 있느냐의 문제, 적절한 매체를 통한 조직적, 체계적인 홍보 전략 등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¹⁸⁾

④지역을 콘텐츠 화한 곳 _유바리 시

일본 북부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夕張) 시는 인구 12만의 도시였는데 ‘지방 자치의 교과서’로 알려져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에서 그 곳을 지방 자치의 본보기로 삼았었다. 이 도시는 눈 축제로 유명한 일본의 3대 환락지인 삿포로에서 1시간여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64억 톤이라는 일본 최대의 석탄 매장 지역인 이곳은 1916년 이후 한국인 징용자들이 끌려와 고된 노역의 고초를 겪은 비극의 땅이기도 하다.

탄광 도시인 유바리 시는 1970년대 후반 대체 에너지 파동으로 탄광이 문을 닫자 ‘탄광을 관광으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도시의 재활에 나섰다. 유바리 시의 공무원이었던 나카타 데즈지(中田鐵治) 시장은 1980년에 석탄 박물관 건립을 필두로 여러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2003년 그가 암으

18) 바이두, 馬燕日記

로 세상을 그만두기까지 6선의 민선 시장으로, 24년 동안 연임하면서 무려 60개의 문화 관광 시설을 건립하였다. 그에 소요된 예산은 시비, 국비, 민간 자본 등을 합하여 216억 엔(한화 2,500억 원) 이었다.

유바리 시가 건립한 주요 시설은 석탄 박물관, 석탄 생활관, 수상 레스토랑인 망향, 세계의 동물관, 패밀리스쿨(숙박 시설), 그린 대극장(야외무대), 대유원지, 유원지 철도, 자전거 터미널, 유바리 멜론성, 멜론성 재배장, 로봇 대과학관, 어드벤처 홀(유원지), 로즈가든(공원), 자전거 로드(공원), 멜론성 2공장, 영상관, 담수어 양식장, 석탄 박물관 채탄 작동관, 노란 손수건 광장, 유바리 녹명관, 숙박시설 해바라기, 호텔 슈파로, 온천 슈파로, 유원지 로라류주, 화석 전시관, 생활 역사관, 스키장, 전시장 센터 하우스, 시네마 전시실, 레스이 온천, 전시 시설 희망, 오토 캠프장 등 굵직한 것만도 30여 개가 넘는다.

이 중에서 관광 개발의 핵심은 석탄 역사촌인데 이는 수천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과 야산을 활용한 ‘유바리 꿈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꽃밭, 메인 건물인 석탄 박물관, 놀이 기구, 과학관, 탄광 생활관 등 32개 시설에 모두 1,1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유바리 시 공무원이었던 나카타 시장은 유바리의 미래는 관광 밖에 없다는 확신으로 부시장 시절에 학습, 휴식, 여가의 관광 개발 개념으로 이미 유바리 개발 계획을 완성했다. 그리하여 한때는 잘 나갔다. 1980년 인구 4만여 명일 때 관광객은 55만 명, 1985년 인구 3만여 명일 때 관광객이 184만여 명, 1991년 인구 2만 명일 때 관광객은 230여 만 명이 찾아와, 일본 전국 지자체의 자극제가 되어 온 나라를 온천과 리조트 천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을 선 것이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이 찾아와 유바리의 성세는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다. 유바리의 몰락은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90년 미쓰비시라는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을 무렵, 인구는 12만에서 2만으로 줄어 있었다. 인구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의원들은 하나가 되어 경쟁적으로

특별행사를 남발했고 이에 뒤질세라 공무원들은 유바리 영화제를 만들어 박자를 맞추었다.

“아무리 차입금을 갖다 써도 마지막에는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호언한 나카타 시장은 홋카이도 신문 광고 대상, 전국의 단체장 상을 수상하는 등 그 유명세는 우리나라에까지 자자했다. 지난 1994년 우리의 태백시 등 한국의 공무원들은 ‘폐광지역 재생 모델’을 배우기 위해 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유바리 시는 2006년 6월 17일 일본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지금 유바리는 시민세가 연간 3000엔에서 3500엔, 소득세 6%에서 6.5%, 경자동차세 연간 7,000엔에서 1만 5,000엔, 하수도 사용료 1,470엔/10m³, 체육관, 야구장, 운동 공원 이용료 500엔에서 700-750엔 이상, 중학교는 4개가 1개로, 초등학교는 7개가 1개로 축소 또는 통폐합, 공무원 월급 30-40% 삭감,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모조리 삭감하고 30% 이상을 조기 퇴직 유도하였고, 의원 정수는 18명에서 9명, 공중 화장실, 노인 복지관, 시립 미술관 등은 폐쇄, 시 공무원은 390명에서 143명으로 감축했으며 이밖에도 시장 월급은 70% 삭감했고, 부 시장은 아예 없었으며 시립병원과 시민회관은 민간에게 이관하고, 구급 환자 서비스는 폐지했으며 고령자 의료시설 통원버스 요금은 4배나 인상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유바리는 자체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와 장·단기 발전 계획의 잘못된 수립, 시장과 공무원 및 시의원의 그릇된 판단과 그와 맞물려 불어 닥친 경기불황 등에 겹쳐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와서 만시지탄이나마 유바리의 32세 젊은 시장은 관용차와 판공비를 없애고 시장의 70% 삭감된 월급을 보충하느라 부인을 방과 후 교사로 근무케 하여 가정을 꾸리게 하는 등 유바리 재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 유바리는 탈 원전의 바람을 타고 다시 불어오는 석탄에 대한 훈풍에 힘입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멜론을 팝콘으로 개발해 큰 효과를 얻고 있으며 기존 관광물을 민영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

울이고 있지만 아직 유바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유바리의 이런 파산 사태는 저 출산, 고령화,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복지비의 증가 등 세출 증대에 다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광 입군 또는 관광 입국을 외치면서 무리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이나 세몰이 식의 선심성 이벤트 축제나 행사, 막대한 예산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각종 사업은 주민의 합의를 거침은 물론 자발적 참여와 함께 그 정체성과 철저한 미래 진단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칫 유바리가 3,520억 이라는 빚 덩어리를 시민에게 안겨준 것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우리에게 있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테니까.¹⁹⁾

⑤ 특산품을 콘텐츠 화한 경우 _대홍포차

<인상(印象) 대홍포(大紅袍)>의 구성

- ㉠ 대왕(大王)과 옥녀(玉女) 편, 일
- ㉡ 다엽(茶葉) 편
- ㉢ 대왕과 옥녀 편, 이
- ㉣ 삼생석(三生石) 편
- 제1세
- 제2세
- 제3세

<인상 대홍포>의 특징

- ㉠ 고사성과 참여성
- ㉡ 세계 최대의 다관(茶館)
- ㉢ 차를 빌어 산, 문화, 생활을 말함
- ㉣ 세계 유일의 중국 차 문화의 산수 실경 연출
- ㉤ 완전 개방형, 세계 제일의 산수에 둘러싸인 극장

19) 이견상, “긴급진단 지자체 파산 위기”, 《전남일보》 2013.10.28.~30.

중국이 차의 고장임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 대홍포차(大紅袍茶)는 복건성(福建省) 무이산(武夷山)에서 나오는 차로서 차중의 왕으로 불린다. 대홍포차는 전통적인 제작 기술 때문에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중국의 오룡차(烏龍茶)를 대표하는 것으로 세계 무형(비물질)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무이산 측에서는 장예모, 왕조가, 번약 등 높은 수준의 창작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 유원하고 중후한 차문화의 내적 함의를 재현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문화 여행 항목으로서 여러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미려한 자연 산수의 농축을, 한바탕 높은 수준의 예술 공연물로 만들었는데 <인상 대홍포>가 그것이다.

<인상 대홍포>는 복건성 무이산에서 심혈을 기울인 중점 문화 여행 항목이다. 우리에게 주희의 <무이구곡가> 때문에 익히 알려진 무이산의 산수 풍광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되돌아감을 잊게 한다고 알려져 왔다.

<인상 대홍포>는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사성이요 다른 하나는 참여성이다. 옛날 고사를 활용하고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두 방향에서, 차의 역사를 보여줌은 물론 각 단계의 체다 공예 및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유채(儉菜), 초방(炒房), 와거(蝸居) 등의 용어, 대왕과 옥녀의 애정 고사, 대홍포의 내력 등을 설명한 뒤, 현대인이 지니는 번뇌 등은 한잔의 차로써 씻겨 행복해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의도하고 있다.

<인상 대홍포>는 차를 통하여 산, 문화, 생활 그리고 특히 화해로운 삶의 이념을 설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번뇌, 원한, 고통과 답답함 등을 다 내려놓고 차를 마심으로써 차가 주는 편안함과 화해로움을 느낌은 물론 아름다운 생활을 향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무이산의 산정에 왕관처럼 보이는 대왕봉은 감동적인 고사를 갖고 있다. 대왕봉은 왕의 위엄이 있다 하여 붙인 이름이고, 신하가 사모를 쓰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사모암,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다 하여 천주봉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전국시대 위나라 왕자 건(騫)이 봉우리 남쪽에 성을 쌓고 연단(煉丹)을 하였으므로 위왕봉이라 부르기도 하며, 웅장한 봉우리가 동남쪽을 진압하는 듯 보이고 여러 봉우리들이 모두 그쪽을

향하여 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선학왕으로도 불린다.

여기에는 대왕과 옥녀의 전설이 전해온다. 아주 오래 전 아름답고 선량한 마음씨를 지닌 선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옥황대제의 총애를 받은 딸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혼자서 몰래 무이산에 내려왔는데 그만 대왕과 눈이 맞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실은 옥황대제에게 알려졌다. 대제는 첩판괴(鐵板怪)를 보내어 옥녀를 데려 오라고 했다. 하지만 옥녀가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거절했다. 화가 난 대제는 두 사람을 두 개의 돌로 만들어 버린 뒤 돌이 서로 바라볼 수 없도록 첩판괴를 둘 사이에 놓아버렸다. 대왕의 부인 낭랑은 자기 딸 때문에 매우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거울 하나를 물속에 넣어두고 그 거울을 통하여 서로 상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인상 대홍포>는 놓칠 수 없는 훌륭한 다섯 있는데 첫째는 시각상의 충격력, 둘째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한 대사, 셋째, 기술력과 예술상의 새로움, 넷째, 고도의 과학 기술의 운용, 다섯째, 선명한 주제 등이 그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가무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고사요, 미려한 전설이다. 각 곡은 차가 주가 되면서 역사, 민속, 산수가 융합되어 하나의 다문화로 귀일(歸一)하며, 차문화라는 독특한 것으로써 무이산의 특질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인과 윤회를 상징하는 전생(前生), 금생(今生), 내생(來生) 등 삼생(三生)을 말함에 있어 삼생석(三生石)이 등장하는데 이는 중생이 자기가 지은 선악의 업력에 따라 육도六道 가운데 여기서 죽으면 저기서 사는 등 끊임없이 순환함을 말하여 순성의 함양을 의도하였다.

한편, 대홍포차의 명칭 유래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1385년 명나라 홍무 18년 정현이라는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을 하던 중 무이산 주변을 지나다가 돌연 병을 얻었는데 복통이 너무 심해 견디기 어려웠다. 우연히 천심(天心) 영락선사(永樂禪寺)의 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차 잎을 꺼내 끓여주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차를 마시자마자 병과 통증이 그쳤다.

과거에서 장원을 한 후 전에 왔던 곳을 찾아가 스님에게 사의를 표하고 차 잎의 출처를 묻고는 대홍포를 벗어 차나무 떨기를 세 번 들렀는데, 그 것은 차나무 위를 덮어준다는 의미였다. 그런 연유로 대홍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장원한 선비는 주석 통에 대홍포를 넣어서 경성으로 돌아갔다.

장원이 임금을 알현한 후에 우연히 황후가 병을 얻었는데 백약이 무효였다. 장원이 주석 통에서 차 잎을 꺼내 황후에게 바쳤는데 황후가 그것을 끓여 마시고 건강이 점점 좋아지자 황제가 매우 기뻐서 홍포 한 벌을 하사하면서 장원에게 명령하기를 그대가 직접 구룡과(九龍窠)에 가서 차나무 위를 감싸주고 왕의 은혜를 보여주라고 했다.

아울러 사람을 파견하여 차나무를 감시하게 하고 차 잎을 채취하여 모두 다 진상하라고 하면서 사사로이 숨김이 없도록 하라 했다. 이로부터 무이암차 대홍포는 황실 전유의 진상 차가 되었고, 대홍포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조정에서는 매년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입고 온 대홍포를 벗어 진상하는 차나무 위에 걸치게 하였는데 이로써 대홍포 차나무가 되었다고도 한다.

<인상 대홍포>는 5분마다 1번씩 360도 회전하는 관중석을 갖추고 있으며, 출연진은 95%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 총 투자액 1억 5천만 원(인민폐, 한화: 약 2천 7백억 원)이 투입된 1,988석의 규모인데 2010년 1월에 초연을 했다. 매일 밤 8시에 공연을 시작하는데 시간은 75분이다. 표 값은 보통표 168원, 귀빈석 238원, 존 귀빈석 600원이지만, 할인을 받을 경우 각 50원, 60원, 88원이면 입장이 가능하다.

<인상 대홍포>는 <인상 유삼저(劉三姐)>, <인상 여강(麗江)>, <인상 서호(西湖)>, <인상 해남도(海南島)>의 뒤를 이은 인상 시리즈 작품으로 장예모, 왕조가, 변약 등 ‘인상(印象) 철삼각(鐵三角)’이 창작한 다섯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 이후 <인상 무룡(武隆)>이 나오는 등 장예모 사단의 인상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 심히 염려스럽다.

우선 막대한 제작비가 그렇고 다음으로는 참신성의 결여이다. 공연물 하나가 2천억 원을 넘어 근 3천억 원을 육박한다니 무리한 기획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품성 또한 일률적이어서 오십보백보라는 혹평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민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다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주며 고품격 삶의 향유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다른 곳과의 차별 없는 기획과 지나친 투자는 결국 일본의 유바리 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지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²⁰⁾

⑥유명한 인물의 콘텐츠 화 _ 윤이상

윤이상(1917-1995)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9월 17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윤기현과 김순달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통영은 풍부한 전통 문화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유럽의 신문화가 활발하게 교차하며 공존하던 곳으로 청마 유치환 등 많은 민족적 시인과 예술가들을 배출한 문화적 요지이자,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다.

윤이상은 감수성이 풍부한 유소년시절 통영의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다채로운 전통문화(유교적인 제사의식, 선비들의 풍류, 유랑극단의 공연, 부유한 친척의 잔치 때마다 들었던 기생들의 노래와 전통악기 연주, 통영 오광대놀이, 무당의 굿, 석가탄신일 미륵산의 연등제, 승려들의 예불소리와 범종소리, 정월 대보름의 다리 밟기와 연날리기, 5월 단오제, 어부들의 남도창 등)와 새로이 유입되는 신문화를 온몸으로 호흡하며 성장한다.

다섯 살 때부터 3년간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한 윤이상은 여덟 살에 유럽식 교육체계의 통영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다. 여기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신문화를 체험하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명확한 음계의 유럽

20) 바이두, 印象 大紅袍

노래는 무엇보다도 어린 윤이상의 마음을 끌었다. 그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풍금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창가의 수재였고, 독보력(讀譜力) 또한 특출했다고 한다. 집 근처의 교회에서 불려지던 찬송가도 윤이상이 어린 시절 경험한 서양음악의 하나였다.

그는 열세 살 때에 바이올린과 기타를 배우고, 연주하며 직접 선율도 써본다. 이때 그가 만든 선율이 통영의 무성영화를 상영하던 영화관의 막간에 행해지는 음악 연주회에서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 편곡 연주되고 있었고, 우연히 자신의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듣게 된 윤이상은 작곡가가 되기를 꿈꾼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윤이상은 음악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통영협성상업학교에 진학하여 2년간 수료한다. 그러나 그는 음악에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일곱 살에 서울로 올라간다. 그는 2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군악대 출신의 한 바이올리니스트로부터 화성학을 공부한다. 또한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총보를 이용하여 독학으로 고전음악과 R. 슈트라우스, 힌데미트 등의 음악도 공부한다.

1935년 다시 통영으로 내려온 윤이상은 상업학교에 진학할 경우 음악을 공부해도 좋다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상업학교에 입학하고, 오사카 음악학원에 다니며 작곡과 음악이론 및 첼로를 공부한다.

오사카에서 공부하는 동안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 사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는 여기서 억압 받는 동포들의 삶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의식에 눈을 뜨게 된다.

한국으로 귀국한 윤이상은 1937년 민족의식이 강한 통영 산양면의 화양학원(지금의 화양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이 시기에 그는 오페라의 문헌을 연구하고 작곡을 계속하며 첫 동요집을 출판한다. 1939년 그는 다시 일본 도쿄로 건너가 프랑스의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유학한 이케노우치 도모치로우(池内友次郎)에게서 대위법과 작곡을 공부한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시작될 기운이 보이자 고향으로 돌아온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징용되어 미곡 창고에서 일하게 된다. 반면에 그는 지하그룹을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도모하다 1944년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두 달간의 감옥 생활을 한다. 석방 후 그는 다시 저항활동을 도모했고, 이를 알게 된 일본경찰을 피해 서울로 도피한다. 결핵으로 쓰러져 경성제대(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그는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한다. 통영의 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였고 해방 후 통영여고 시절까지 유치환, 김상옥 등과 함께 통영여고, 통영고교, 옥지중교 외에 다수의 초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윤이상은 통영의 문화 예술인들(시인 유치환, 김춘수, 김상옥, 작곡가 정윤주 등)과 함께 민족문화 창출을 목적으로 ‘통영문화협회’를 설립하고, 음악부문을 주도해 나간다. 이 기간 동안 윤이상은 통영 소재 여러 학교의 교가를 작곡한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몰려드는 전쟁고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부산시립고아원의 소장이 되어 이들을 교육하고 보살핀다.

1948년 통영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부산사범학교로 옮긴다. 그는 음악을 가르치고 가곡과 현악4중주 등을 작곡하면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전개하며, 1949년에는 다섯 개의 가곡을 한데 묶은 초기 가곡집 『달무리』를 부산에서 출판한다. 윤이상은 같은 학교 국어교사인 이수자(1927-?)와 1950년 1월 30일 결혼한다.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해 11월 첫 딸 정이 출생한다. 1950년에 부산에서 조직된 ‘전시작곡가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1951년 부산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를 지내다가 1953년 휴전협정 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한다.

1956년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3년간의 서울 생활시기에 서울대학교 예술학부와 덕성여대 등을 출강하며 작곡과 음악이론을 가르치고 작품과 평론을 활발하게 발표하며 한국 음악계에 작곡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다. 1954년 ‘전시작곡가협회’가 ‘한국작곡가협회’로 서울에서 새

로이 발족했고, 윤이상은 이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음악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1954년에 발표한 윤이상의 글 「악계구상의 제 문제」는 당시 한국 음악계의 당면 문제와 ‘한국음악의 수립’이라는 명제를 위해 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글로서, 윤이상의 작곡 작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1956년 4월 윤이상은 <현악4중주 1번>과 <피아노 트리오>로 ‘제5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그는 당시 한국에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20세기 작곡기법과 음악이론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유학을 결심한다.

그는 1956년 6월 불혹을 앞둔 39세의 나이에 동료 및 선·후배 음악가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프랑스 파리로 떠난다. 이 길이 그가 다시는 고향을 볼 수 없는 길임을 그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다.²¹⁾

한편, 윤이상은 1917년 9월 17일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에서 아버지 윤기현과 어머니 김순달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통영으로 이주하면서 통영에서 수학하며 성장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14세부터 독학으로 작곡을 시작하였으며, 1935년 일본 오사카 음악학교(大阪音樂學校)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작곡을 비롯하여 음악이론, 첼로 등을 배우고 잠시 귀국한 후, 다시 1939에 일본에 건너가 이케노우치 도모치로우로부터 작곡을 공부했다.

1943년 항일지하활동에 참가한 이유로 감금을 당하기도 했으며, 해방 후 1952년까지 통영과 부산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였다. 1949년 <고풍의상>·<달무리>·<추천> 등이 수록된 가곡집 『달무리』를 출판하였으며, 1953년에 서울로 이주하여 경희대·숙명여대·덕성여대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6년 프랑스로 건너가 1957년까지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Paris Conservatoire)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공부하였고, 다시 독일로

21) 통영시청 홈페이지

가 베를린음악대학(Berlin Hochschule)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1959년 동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네델란드의 빌토벤과 독일의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서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과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이 초연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에 체류하게 되었고 유럽 각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64년 독일 포드기금회의 요청으로 베를린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1965년에 오라토리오<오, 연꽃 속의 진주여>와, 1966년에 독일의 도나우싱엔 현대음악제에서 대편성 관현악곡 <예악>을 발표하여 국제적인 작곡가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65년에 <현악4중주 1번>과 <피아노 3중주>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1967년에는 이른바 ‘동베를린 사건’에 연유되어 2년간 복역을 하였으며 1969년 다시 독일로 돌아가 1970년부터 1971년까지 하노버 음악대학(Hanover Hochschule für Musik)에서 작곡을 가르쳤다. 1971년에는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1972년에 뮌헨 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위촉받은 오페라 <심청>의 대성공으로 세계적인 작곡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베를린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85년에 튀빙겐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리고 1970년에 쾰 문화상과 1987년에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 훈장을 수여 받았다.

유럽의 평론가들에 의해 ‘20세기의 중요 작곡가 56인’,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1995년에는 독일 자아브뤼겐 방송이 선정한 ‘20세기 100년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0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범민족 통일음악제’의 준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남북한 합동공연을 성사시켰으며, 사망 전까지 함부르크와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 및 국제현대음악협회(ISCM)의 명예회원으로 활동했다.

작품으로는 <유동의 꿈>·<나비의 미망인>·<요정의 사랑>·<심

청> 등 네 편의 오페라를 비롯하여, <바라>·<무악>·<예악>·<광주여 영원히> 등 20여 편의 관현악곡, 오보에와 첼로를 위한 <동서의 단편> 등 40여 편의 실내악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등의 교성곡, 동요에서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1백 50여 편을 남겼다.

1977년 루이제 린저와의 대담을 엮은 자서전 『상처받은 용』이 독일과 서울 그리고 평양에서 각각 출판 되었다. 한국음악의 연주기법과 서양악기의 결합을 시도하여, 서양 현대 음악기법을 통한 동아시아적 이미지의 표현에 주력을 하였으며, ‘동서양을 잇는 중계자 역할을 한 음악가’라는 음악사적 지위와 함께 ‘독일 관념철학의 전통이 벽에 부딪친 서양문명의 흐름 속에서 동양사상을 담은 음악으로 세계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작곡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²²⁾ 이러한 윤이상에 대한 통영시의 문화 콘텐츠 화를 위한 노력과 다음과 같은 결실은 참고할 만하다.

㉠윤이상 기념공원(도천 테마파크)

2010년 통영시 도천동에 조성한 이 공원에는 윤이상의 생가를 복원하고 윤이상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윤이상 기념관(전시실)에는 윤이상 관련 유물이 전시되고 있고, 카페와 기념품 가게, 로비의 기능을 한 에스파체, 그리고 각종 공연과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메모리 홀 및 야외 행사장인 경사광장 등이 있다. 이곳은 홈페이지가 잘 꾸려져 있어 어린이는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통영국제음악당(통영시 도남동 소재)

아시아의 대표 음악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와 세계 젊은 예술가들의 향연장인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의 도약을 위해 건립된 통영국제음악당은 2013. 11. 8(금) 오후 2시에 문을 열었다. 총 사업비는 52,000백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3월-2013년 11월이었는데 부지

22) 네이버, 윤이상

33,058㎡에 연면적 14,618㎡로 지상 5층 건물이다. 시설로는 음악전용 메인 홀(1,300석), 블랙박스(300석), 리허설 룸, 카페테리아, VIP라운지, 옥외 데크,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음악당 앞에 들어서면 통영 바다의 파도 소리가 건물 지붕에 짐음(集音)되어 생생하게 들리도록 치밀하게 설계를 했는데 달뜨는 밤에 통영의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팔딱이는 파도소리를 듣는 재미는 매우 환상적이다.

㉔통영국제음악제

현존하는 현대 음악의 5대 거장 중 한 사람인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2002년 처음 시작된 음악축제로 2002년부터 통영 현대음악제에서 통영 국제음악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아름다운 통영의 봄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통영 국제음악제는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제에서 보다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정상급의 음악가들의 작품과 연주가 하나 되는 음악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음악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아마추어와 프로작가,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아무런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음악을 매개로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행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매년 3월 개최)

㉕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경상남도, 통영시, 경남MBC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는 경남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이를 통해 국제 문화교류에 이바지하며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본 콩쿠르는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부문에서 매년 10-11월경 번갈아 개최 되며, 2003, 2006, 2009, 2012년의 첼로 부문, 2005, 2008, 2010년의 피아노 부문, 2004, 2007, 2011년의 바이올린 부문에 이어 2013년에는 다시 피아노 부문이 개최 되었다.(매년 11월 개최)

㊸윤이상 동요제

2012년 통영국제음악제 10주년을 기념해 처음 열린 이 동요제는 통영의 작곡가 윤이상이 작곡한 동요들을 재발견하고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어린이들이 윤이상의 동요들을 편곡해 부르며 마음껏 동심의 세계를 표현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윤이상이 남긴 <외로운 등댓불>, <구름>, <봄바람> 등 70여 곡의 동요들을 통영국제음악제의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㊸통영뮤지컬포털

통영시는 홈페이지에 통영뮤지컬포털을 개설하여 작곡가 윤이상, 윤이상의 삶, 클래식 음악 정보, 윤이상 기념 공원, 통영 국제 음악제 등에 대해 상세 정보 제공 및 안내를 친절하게 하고 있다.²³⁾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통영의 윤이상 사랑은 대단하다. 통영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을 앞세워 국제적인 음악 도시 통영으로 그 위상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다. 박경리, 김상옥, 김춘수, 유치환 등 문학에서도 큰 인물이 많은 통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 도시로 알려져 있거니와 윤이상의 명성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의 도약은 천혜의 자연风光과 더불어 결코 요원한 꿈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윤이상과 관련한 문화 콘텐츠와 여러 사업들이 지역민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 등 지역민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느냐 일 것이다. 사업은 특정의 주최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주민과 동떨어진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민을 배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영국제음악당은 지난 1992년 북한에 건립된 윤이상 음악당 때문에 많은 논란 끝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탄생 시킨 음악당인 만큼 그 활용과 운영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자긍심의 배양 등 치밀한 계획과 투철한

23) 통영시청 홈페이지

운영 철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⑦ 역사, 전설, 지역 유산을 콘텐츠 화 경우 _송성 천고정(宋城 千古情)

중국 절강성 항주시는 중국 7대 고도의 하나로 영은사, 서호, 용정차 등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도시이다. 항주는 남송의 수도로서 민족 영웅 악비(岳飛) 장군이 활약했던 곳이며, 당나라 때 백거이(白居易)와 송나라 때 소동파(蘇東坡) 등이 관리로 근무하면서 큰 업적과 아름다운 시편을 많이 남긴 것으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매처학자(梅妻鶴子)의 은인거사로 알려진 송나라 시인 임포(林逋)와 관련한 고산(孤山), 육화탐에 얽힌 <백사전(白蛇傳)> 전설과 남녀의 애정을 주제로 한 <양산백(梁山伯)과 축영대(祝英台)> 이야기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붙드는, 이른바 하늘엔 천당, 땅엔 소항(蘇杭)으로 회자되는 아름다운 곳이다.

지난 1996년 항주시는 송성 예술단을 설립하여 이른바 <송성 천고정>이라는 가무극을 만들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성황리에 공연하고 있다. 서막을 포함하여 전체 5장으로 구성된 이 가무극은 서막으로 양저지광(良渚之光), 제1장 송궁연무(宋宮宴舞), 제2장 금과철마(金戈鐵馬), 제3장 서자전설(西子傳說), 제4장 매력항주(魅力杭州) 등으로 전개된다.

항주시는 남송 수도의 모습을 그린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를 기본으로 남송의 수도인 송성을 재현하고, 가무극 <송성 천고정>을 만들어 “건축은 형체요, 문화는 혼이다”는 송성의 경영 이념과 “나에게 하루를 빌려주면, 그대에게 천 년으로 되돌려준다”라는 주제를 통해 매년 1,300여 회 공연으로 약 600만 명의 관중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연 회수는 15,000여 회, 누적 관람객 수는 4,500여 만 명,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경제적 수익은 인민폐 4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송성 천고정>은 조명, 음향, 무대 장치, 출연진의 복장 등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 가무극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여기에 형식, 집단 무도, 잡기, 유행하는 의상의 표현 등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도 오랜 인기의 비

결이기도 하다.

이 가무단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극단원의 선발, 교육, 출연 기회 등에 있어서 우수열태(優勝劣汰, 잘하면 쓰고 못하면 버림)와 능진능출(能進能出, 잘하면 더욱 잘하게 지원해줌)의 시스템을 도입, 실행하고 있는데 매년 출연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상금과 퇴출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출연진에게는 기본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절강대학 등 여러 관련 단체와 제휴하여 연기자로서의 소질과 수양, 다양한 이해력과 감성 능력 등을 교육시켜 준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10여 회를 공연하면서 하루 최대 5만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이 가무극은 전체 출연진이 400여 명이며, 이 중 일급 연기가 약 40여 명으로 이들의 월급은 기본급만 인민폐 5,000원 이상이다.

세계 3대 가무극의 하나인 이 극은 “낮에는 절을 보고, 밤에는 잠만 잔다”는 항주의 여행 시장 격식을 크게 바꾼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가무극을 통하여 야간에 볼거리가 없었던 항주시에 많은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행 공백을 메우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송성 천고정>은 옛 월나라 땅에 이룩된 8천 년에서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양저(良渚)의 찬란한 신석기 문화가 하, 은, 주 문명의 주요 성분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서막을 연 다음, 제1장 송궁연무는 남송 시대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 4대 방면에서 인구 1백만의 항주가 세계적 저명한 도시로 번성했던 화려한 모습을 연출한다.

제2장 금과철마는 동남의 형승지요, 오나라의 수도였고, 예부터 비옥했던 전당강의 삼각주, 안개에 싸인 버드나무와 그림 같은 다리들, 바람에 나부끼는 푸른 나뭇가지의 몸부림, 올망졸망 십만여 가구의 주민들 모습 등 항주의 화려하고 변화한 도시 풍모를 시기한 북방의 금나라가 1127년 변경(汴京, 북송의 수도)을 공격하자 송 휘종의 아홉째 아들 조구가 항주로 도망하여 수도를 정하고 남송 왕조를 열어 금나라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구는 송의 고종으로 불리거니와 이 당시 악비 장군의 활약이 대단했지만 그는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제3장 서자전설은 동해 명주(明珠)로 불리며 송 나라 인종이 “동남 제 일주”라 극찬했을 만큼 아름답고 명승고적이 풍성한 ‘인간 천당’ 항주의 역사와 전설 등이 소개된다. 특히 백사와 허선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중국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는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 이야기, 여기에 서호의 자연과 백거이, 소동파, 임포 등이 남긴 문학 자산 등 인문 경관이 무대에서 휘황찬란하게 연출되어 사람을 황홀케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 매력 항주는 동방 휴한(休閒)의 수도, 품격 있는 생활의 도시로서 매력이 무궁한 항주를 소개하는데 실크의 고장, 아름다운 서호의 풍경, 건강에 좋은 용정차, 천년 고찰 영은사 등을 통하여 항주가 최적의 관광도시라는 홍보적 내용으로 결말짓는다.²⁴⁾

<송성 천고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 지역의 자연유산, 기층의 전설과 인물 등 인문 자원, 지역 특산품 등을 활용하여 만든 문화 콘텐츠인데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 가무극은 “문화가 혼이다”는 경영 이념이 주효했는데 매년 새롭게 스스로 변화와 갱신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모습, 인재 발굴과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아니한 경영 철학, 인문 유산과 자연 유산을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등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적잖은 것 같다.

6. 마무리

우리는 인문학의 시대, 인간 존재의 가치 담론이 주목받는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를 살아 갈 것이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인문학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며, 인생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24) 바이두, 宋城 千古情

더 나은 인생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는 것이 인문학의 핵심이어야 한다.²⁵⁾는 말은 그래서 호소력이 있다.

필자는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중시하는 인문학적 사고에서 송강가사의 문화 콘텐츠 화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의도했다. 이런 생각은 「예기(禮記)」의 <학기(學記)>에 “雖有嘉肴不食 不知其旨也, 雖有至道 不學不知其善也”란 말에서 그 출발점이 생겼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을지라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훌륭한 도가 있을지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훌륭함을 알지 못한다”는 위의 글귀는 송강가사를 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가치를 찾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목표 설정에 대해 지침이 되었다.

한국은, 적어도 담양은 송강가사라는 훌륭한 문학적 자산(「예기」에서 말한 맛있는 음식, 훌륭한 도)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다.(「예기」에서 말한바 대로 음식의 맛을 보거나 도를 배우지 않음) 이 경우 송강가사의 가치를 논하는 문제는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는 인문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기에, 콘텐츠 화의 방향 또한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보다는, 지역민의 지역에 사는 존재 이유나 존재 가치 및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중시기를 제안한다.

필자는 논의를 수월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대상으로 문화 콘텐츠 화를 먼저 이룬 몇 사례를 들어보였다. 그 것은 <선종 소림사 음악대전>과 같이 명소를 대상으로 한 것, <무녀도 동리>처럼 이름 난 소설을 대상으로 한 것, <마연일기>처럼 인위적으로 기획, 홍보하여 만든 경우, <유바리>시의 사례처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관이 주도하여 지나치게 외연을 확장한 것, <인상 대홍포>처럼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관광 수입 창출을 위한 것, <윤이상>처럼 유명한 인물을 대상으

25) 김무영, 『인문학은 행복한 놀이다』, 사이다, 2013, 28면.

로 지역의 자긍심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한 것, <원이 엄마의 편지>처럼 특정 유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화를 시도한 것, <송성 천 고정>처럼 옛날 고도로서의 역사적 위상과 인지도를 십분 활용하고, <백사전>, <양산백과 축영대> 등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전설 등 인문자원과 월나라 서시를 닮아 아름답다는 서호 등 자연 자원을 융·복합하여 지역민의 결속은 물론 지역을 알리고 나아가 흥미 요소를 가미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자긍심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구미를 당기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수익 창출에까지 성공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런 다양한 사례의 장점과 성공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될 것이며, 단점과 실패의 아픔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 때문에 콘텐츠화를 하는가? 곧 콘텐츠화의 목적과 방향이다.

앞서 「예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아는 것’과 ‘훌륭한 도를 배워서 그 훌륭함을 아는 것’에 견주어 볼 때, 지금까지 우리는 송강가사가 참으로 맛있는 음식 같은 것이고, 훌륭한 도 같은 것임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본격적인 시식은 해보지 않았거나, 했다손 치더라도 왜 먹고,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진지하게 따져 묻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송강가사를 ‘맛보고 배우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임무 같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왜 맛보고 왜 배우는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가치 창출 중심으로 송강가사의 콘텐츠화 밑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함은 앞서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종 소림사 음악대전>, <인상 대홍포>, <유바리> 등의 예는 경계하거나 지양해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는 막대한 예산 투자를 통하여 관광객을 흡입하고 그로써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도되었다. 위의 예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고,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이 엄마의 편지>, <마연 일기>, <무녀도 동리>, <윤이상>, <송성 천고정> 등은 일단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원이 엄마의 편지>는 그 시대, 내용 등에서 송강의 양 미인곡과 매우 닮았다. 물론 그 둘의 질적 수준이야 비교가 곤란하지만, 둘 다 16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이면서, 어떤 대상을 향한 그리움 내지는 원망을 담고 있음은 비교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겠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송강의 양 미인곡은 임 곧 왕의 사랑을 그리워한 연군의 내용이며, 원이 엄마의 편지는 죽은 남편을 그리는 연부의 내용이다. 하지만 둘을 대하는 담양과 안동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음 또한 비교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안동은 위 편지를 가지고 문화 콘텐츠로 할 수 있는 시도는 거의 다 했다고 하겠다. 위 편지를 대하는 안동시의 열정과 노력에 삼가 경의를 표하게 한다. 물론 안동시가 위 편지를 여러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며, 주민의 합의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작업이 성공한 사례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안동시가 보인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자긍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송강가사의 경우 안동시가 보여준 바와 같이 오페라, 뮤지컬, 소설화, 대중가요, 무용극 등은 시도해볼만한 콘텐츠 항목이라 사료된다. 이 경우 송강가사의 탄생지인 담양의 역사적 위치와 의의, 담양이 갖고 있는 금성 산성 등 문화유산과 그 역할, 담양의 누정과 시가 문학의 전통과 박상, 송순, 임억령 등 유명한 시인들의 생애와 업적, 몽성산(몽선산, 삼인산), 추월산 등과 관련한 설화, 숙종 비로서 영조를 낳은 동이의 이야기 등은 훌륭한 극적 요소가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송강가사가 조선시대라는 배경과 연주(戀主)라는 내용, 그리고 당대의 문화적 의미망과 문화사적 의미가 아날로그 세대에게는 역사에 대한 회억과 추억의 반추로 동질성을 강화시켜주며, 디지털 세대에게는 사랑이

라는 만인의 공통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 나아가 교육이라는 관심거리를 제공해주는 등 언제나 당대적 문화조류를 선도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연일기>는 무엇보다도 번역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마연의 일기가 제아무리 순박하고 진솔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호소력이 있다 할지라도, 번역한 내용이 널리 대중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과연 21개 국가에서 그와 같은 선풍적 인기를 끌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차제에 송강가사의 번역 사업에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었다. 그간 일부 작품에 대하여 번역하는 등 외국으로의 소개 시도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번역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유능한 번역자의 발굴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뮤지컬 <무녀도 동리>는 경주시가 천년고도의 정체성을 경주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작하였는데,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의 반응이 매우 좋아 서울 국립박물관으로 옮겨가 공연되었다. 이는 아날로그 세대들에게 이미 획득된 작품의 명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뮤지컬이라는 문화 매체로 재탄생시킨 예로써, 디지털 세대를 새로운 작품 향유층으로 받아들이고, 아날로그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결국 작품의 수용자 층을 넓히고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했다는 평을 듣게 되었다.

담양의 경우 2018년, 담양군 창설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천년 담양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 담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담양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담양 존재의 의의를 살리는 차원에서 뮤지컬이나 오페라 제작을 제안한다.

그 내용은 담양의 역사, 누정의 고장, 시가문학의 산실, 청정과 생태의 청죽골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으며, 주축은 이미 수용자 층이 두텁게 확보된 송강가사 등 시가문학을 바탕으로 인문과 자연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이 융·복합 되었으면 한다.

<윤이상>은 그 출신, 사상, 업적 등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심지어는 북한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

함은 다 아는 사실이다. 통영시가 진행한 개인 윤이상에 대한 추모 사업 내지 여러 문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그 범위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이면서 규모 또한 크다 하겠다. 통영시의 열정과 배짱이 주목되 거니와 앞으로의 성패는 주민의 합의와 예산의 뒷받침일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프로그램)과 운영의 묘이다. 누구를 위하여 윤이상 관련 사업을 하는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송성 천고정>은 담양군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 이유는 역사, 지역의 자연유산, 기층의 전설과 인물 등 인문 자원, 지역 특산품 등을 활용하여 만든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 가 무극은 “문화가 혼이다”는 경영 이념 아래 매년 새롭게 스스로 변화와 갱신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모습, 인재 발굴과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아니한 경영 철학, 인문 유산과 자연 자원을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등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적잖은 것 같다.

담양의 경우 송강가사 등 시가문학의 산실이라는 명성을 십분 살리려면 한국가사문화관과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양정가>를 필두로 송강가사 등 가사문학 자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의 등재 노력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몇 년 전 15, 6세기 세계 문학 공원을 기획한 경험을 되살려 시가문학촌이나 시가문학공원 같은 문학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 안에 담아야 할 콘텐츠는 실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글쓰기 마을, 시가 문학관, 시가문학 인물실 등을 생각해 본다.

끝으로 담양 대나무 축제와 관련한 송강가사 콘텐츠화 사업을 제안한다. 대나무 축제는 매년 열리고 있는 담양의 대표 축제이지만, 대나무와 관련한 담양만의 그 무엇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감이 너무 많다. 따라서 송강가사 등 시가문학의 산실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축제 콘텐츠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른바 ‘글쓰기 축제’의 개최를 제안한다.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서는 매년 여름에 글쓰기 축제를 열고 있다. 이는 그 곳이 플래너리 오코너, 존

어빙, 테네시 윌리엄스, 커트 보네거트 등 유명한 문호들이 그 곳 아이오와 대학 출신이라는 명성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 운영이다. 이 축제는 아이오와 대학에서 1주일 혹은 주말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유명한 작가들과의 만남 등 그 과정이 무려 130개 이상이다.²⁶⁾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은 꼭 작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얻기 위함이며, 박력 있고 당당한 자신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축제는 그 과정의 운용이 흥미로운데 초보자를 위한 소설 작법의 경우, “폭풍이 몰아치는 캄캄한 밤이었다”라는 첫 문장을 주고, 그 뒤를 이어 소설을 쓰라는 과제를 주는 것이 그 것이다.

담양은 2015년 대나무 엑스포를 치를 예정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송강가사 패러프레이즈 대회, ‘새로 쓰는 사미인곡’, ‘나의 속미인곡’ 등은 물론 가사와 한시를 포함하여 시가문학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며, 아울러 힐링(치유)과 셰어링(공유)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가문학의 음악화 내지는 미술화, 연극화 등도 함께 시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만중, 『서포만필』

임세권 풀이, <원이 엄마의 편지>

김무영, 『인문학은 행복한 놀이다』, 사이다, 2013.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 한국가사문학관, 2001.

26) 팸 그라우트, 김지영 역,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100대 여행지』, 북노마드, 2011, 27-28면.

성원경, 「송강과 동파문학의 비교고」,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제26집, 1994.

최한선,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 태학사, 2013.

王水照, 조규백 역, 『중국의 문호 소동파』, 월인, 2001.

錢伯城, 『古文觀止』, 上海古籍出版社, 2006.

팜 그라우트, 김지영 역,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100대 여행지』, 북노마드, 2011.

네이버, 쿠리치바라는 희망

네이버, 백세(백쇼)

네이버, 프라이부르크

네이버, 윤이상

바이두, 禪宗 少林寺 音樂大典

바이두, 馬燕日記

바이두, 印象 大紅袍

바이두, 宋城 千古情

위키미디어, 쇠퇴하던 도시 게이트헤드는 어떻게 대반전을 이룬 것일까요?

위키미디어, 영국 게이트 헤드

안동시청 홈페이지

통영시청 홈페이지

이건상, “긴급진단 지자체 파산 위기”, 《전남일보》 2013.10.28.~30.

투고일 : 2014 1월 13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Making Cultural Contents of Songgang's Gasa

Choi, Han-sun

As humanities have become main area of interest, humanistic resources such as works of arts and authors are regarded as important material of making cultural contents. But making cultural contents must be compatible with the agreement of inhabitants of their own accord. And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making contents must be turned toward raising the quality of life and enhancing self-confidence.

As written in Book of Rites, if you want to know the good taste, you must eat first, and even if there is an excellent tao, you must learn it completely. Under the uniting knowledge and conduct, this thesis makes the proposal for the making cultural contents of Songgang's Gasa which is conceived in Damyang area. First of all, comparing with the precedent examples such as Tongyoung, Andong, Gyungju, Japan, China, England, Brazil, and Germany several suggestions were selected.

Also, cultural events such as musical, opera, novel, and composition competition using Songgang's Gasa are suggested in order to celebrate Bamboo Expo, Bamboo Festival and 1000th anniversary of Damyang in 2018. Songgang's Gasa was born based on the humanistic tradition and fertile cultural background in Damyang. So be sure to make contents around arbors considering natural surroundings and ecological basis.

Finally, this thesis suggests not only paraphrasing Songgang's Gasa in fine arts, music and drama, but also making various cultural contents

aiming at healing and sharing which are in agreement with modern trends by using traditional literary genre such as Chinese poetry, Sijo and Gasa.

Key words : Songgang's Gasa. cultural contents, quality of life and self-confidence, humanistic resources, arbor and nature resources, healing, sharing, memory of the world